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2022

9

주소: 서울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50-311 전화: 02-555-1946/ 010-5235-1946 메일: snuarta@naver.com 밴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1 본회소식

77년의 역사를 담는다!! '서울대미술인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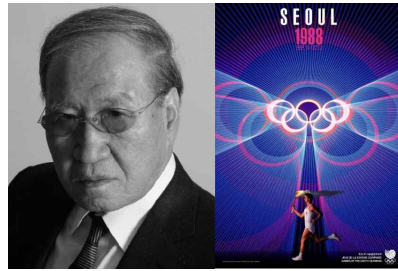
광화문충무공상 조각가 김세중(46조소)



물방울화가 김창열(48회화)



단색화대가 정상화(53회화)



서울올림픽디자인위원장 조영제(54응미)



현대미술거장 이우환(56회화)



설악의화가 김종학(56회화)



서울대정문제작 공예가 강찬균(57응미)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유희영(58회화)



화폐영정작가 이종상(59회화)



빛의화가 신부 김인중(59회화)



인천공항실내디자인 이중복(63응미)



민중판화가 오윤(65조소)



전 서울시부시장 권영길(69응미)



싱어송라이터 김민기(69회화)



18대국회의원 김정(70응미)



화첩기행 저자 74김병중(74회화)



진주교방거리춤이수자 김경란(75조소)



아트인컬처 대표 김복기(80회화)



누크갤러리 대표 조정란(80응미)



아동도서출판 비룡소대표 박상희(81조소)



세계적설치미술가 서도호(81회화)



KTX산천디자인 조철하(85산미)



뽀로로 창작자 김일호(88산미)



배우 감우성(89동양)



세계적설치미술가 양혜규(90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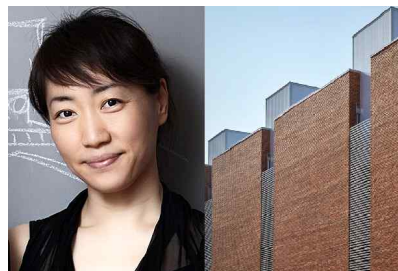
내촌목공소 목수 이정섭(91서양)



안데르센상수상 이수지(92서양)



네이버북색창디자인 조수용(93산미)



젊은건축가상수상 전보림(93조소)



에듀테크 에누마 대표 이수인(95조소)



영화감독 장훈(99디자인)



오스카상후보 감독 에릭오(오수형02서양)



뮤지션 나잠수(나진수03디자인)



무직타이거 송의섭-배진영(04-07디자인)



디자인전문변호사 서유경(06디자인)



래퍼 빈지노(임성빈08조소)



웹툰작가 무적핑크 변지민(09디자인)



타로와인바 서랍 대표 정예슬(10동양)



최연소에르메스상수상 류성실(13조소)



주문케익 파티이미지대표 김명주(14조소)

77년의 역사를 담는다!! '서울대미술인 2023'



본회는 대한민국 문화예술계를 이끌어온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문 77년의 역사를 담은 '서울대미술인 2023'(가칭)을 발간합니다. '서울대미술인 2023'은 미대 최초 46학번 원로동문부터 2023년 졸업 동문까지 전체 미대 동문의 작품과 실적을 총망라하는 전무후무한 자료집이 될 것입니다. 본회는 지난 2020년, '서울대미술인 2023'을 발간하기 위한 기반으로 시각예술분야 약 800명의 동문을 수록한 '서울대미술인 1946-2022'(사진)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번 '서울대미술인 2023'은 회화/조각/공예/영상/퍼포먼스/설치/건축/디자인 등의 시각예술분야는 물론, 영화/공연/음악/저서/프로젝트/사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있는 모든 미대 동문들의 실적 이미지와 약력을 수록할 예정입니다. 작고동문과 해외거주 동문을 포함한 모교 및 동 대학원 동문, 모교 전임교원 등도 수록할 예정이기에 '서울대미술인 2023'은 2천명 이상의 동문들의 활동자료를 집대성하는 뜻 깊은 본회의 역점 사업입니다. 본회는 지난 3월부터 발간 준비 작업에 들어가 웹과 참고 문헌 등을 통해 사전 자료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해왔으며, 1년간의 작업을 거쳐 내년 4월 출판행사와 함께 도록을 출판할 예정입니다. '서울대미술인 2023' 수록신청 요강은 10월 중 공지할 예정이오니,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문의 : 동창회 사무국 (전화) 02-555-1946 (문자) 010-5235-1946

동창회장 간담회



본회 권영걸(69응미) 회장과 이민주(76 회화) 상임부회장은 지난 9월 27일 오전 11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서울대총동창회 주최 동창회장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종섭(66 사회사업) 총동창회장과 각대학(원)·직능지부·특별과정의 동창회장, 사무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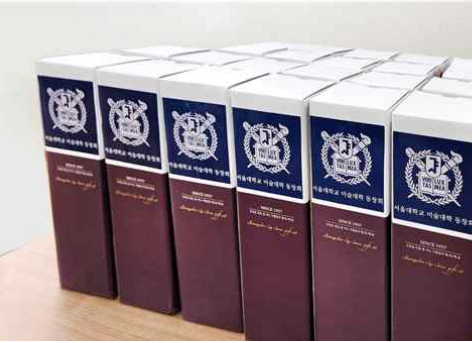
이 참석하였으며, 2022년 총동창회 업무보고와 오는 10월 16일 개최될 제43차 서울대학교 홈커밍데이 겸 동문 화합 한마당 행사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보고와 토의가 진행되었다. 이자리에서 본회 권회장은 과거 미대 홈커밍데이를 사례로 들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캘린더작품 선정

본회는 2023년도 서울대학교총동창회캘린더에 수록될 작품선정을 위해 김성희 모교학장, 심상용 서울대미술관장, 김복기 아트인컬처대표, 서길현 미술평

론가 등 4인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수록작품을 선정했다. 수록되는 작품은 표지를 포함해 총13점이며 김인중, 이광택, 권대훈, 유한이, 오병옥, 신하순, 김민주, 류지선, 김병중, 한운성, 김승희, 임철순, 최종태 동문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소정의 이미지 사용료가 지급된다. 이번에 제작되는 캘린더는 탁상용으로 서울대동문들에게 11월말에 배포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총동창회는 평생회비 또는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중 58세미만 동문들에게는 탁상용캘린더를, 58세이상 동문들에게는 수첩을 매년 증정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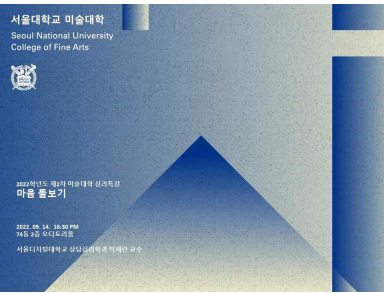
명절선물 전달



본회는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6일 모교 경비실 및 미화실, 교무행정실, 서무행정실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에게 정성을 담은 작은 선물을 준비해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였다. 본회는 지난 2019년 권영걸 회장 취임 이후 매년 설날과 추석 명절에 모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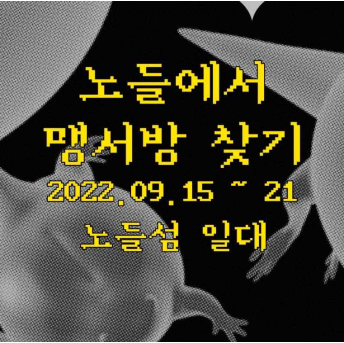
모교 소식

제2차 미술대학 심리특강



모교(학장 김성희)는 지난 9월 14일 서울대74동 2층 오디토리움에서 제2차 미술대학 심리특강을 개최했다. 1학기의 1차 심리특강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이번 특강은 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박세란 교수가 '마음 돌보기'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당일 참석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온라인(ZOOM)으로도 특강을 공개했다. 한편 모교는 심리특강 외에도 2020년 7월 개소한 상담실 '미소'를 통해 학생들에게 무료로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마음건강과 대학생활적응을 돕고 있다.

2022 서울은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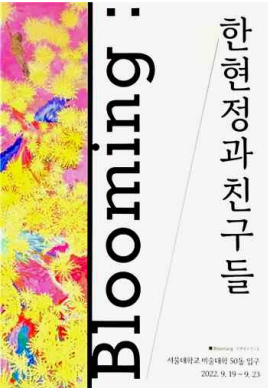
모교 디자인학과 팀이 '2022 서울은 미술관-대학협력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해 '노들에서 맹서방 찾기'라는 주제로 지난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 한강 노들섬에서 전시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디자인과 장성연 교수의 지도하에 김연선, 임혜민, 이나영, 조민주, 조동호, 최서희, 황서현으로 이루어진 모교 디자인과팀이 노들섬 일대의 맹꽂이 숲의 존재를 알리고 점차 설 곳이 사라지는 맹꽂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연 전시였다. 이들은 맹꽂이의 특성과 서식지 문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AR전시, 게임 등 4개의 참여 프로그램을 구성해, 도슨트를 따라 3개의 참여형 전시와 로드무비를 감상하도록 하였다.

벽화집활용 작품전



동양화과가 주관하는 '시스티나예배당 벽화집 활용 작품전'이 서울대 중앙도서관 관정관 1층 관정마루에서 8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린다. 모교 동양화과 선우항(91서양) 동문이 지도하는 '벽화기법' 수강생들은 벽화집 'La Cappella Sistina'에 수록된 프레스코벽화 작품을 현대으로 모사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중앙도서관과 동양화과가 소장 자료의 가치 조명과 수업 및 연구 활용 독려를 위해 함께 기획했다.

한현정과 친구들



동양화과 동문들이 뜻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창작열을 불태우고 있는 한현정(한효니. 08동양) 동문을 위한 전시 '한현정과 친구들'을 지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모교 50동 입구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한동문의 오픈갤러리 장학생 선정 인터뷰를 통해 암투병 소식을 알게 된 동양화과 교수들 및 동기, 선배들이 한동문을 응원하고자 마련한 전시로, 한동문을 비롯해 강호성·김봉경·김종규·박현정·이규석·전수연·주형준·최가영 동문 등 8인의 선배 작가가 참가했다. 이들은 전시취지에서 "한동문이 처음 모교에 들어섰던 50동 입구, 같은 장소에서 전시를 열어 동고동락했던 동료들과의 자그마한 추억을 만들어 한동문을 응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동문은 서울대 대학원 동양화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2019년부터 본회 간사로서 동문들을 위해 봉사해왔다.

서울대 소식

후기학위수여식 대면개최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제76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지난 8월 29일 오전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하였다. 오세정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코로나19 시대는 인류에게 닥친 어려움을 세계적으로 합심하여 이겨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준 시간이었다.”며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빠져나가는 시점에 세상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딛는 졸업생들은 새로운 세계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담대한 미래를 설계하는 주역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959명, 석사 1,041명, 박사 700명 총 2,700명이 각각 영예로운 학위를 받았다. 2019년 가을에 있던 제73회 후기 학위수여식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진 이번 학위수여식에 코로나19로 온라인 학위수여식이 진행된 지난 졸업생(2020년 8월~2022년 2월, 2020년 2월 미개최)도 초청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서울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되었다. 한편 서울대는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등의 사유로 제적되어 졸업하지 못한 7명의 민주화 열사를 명예졸업자로 선정하고 학위수여식 중 유가족에게 명예졸업증서를 전달했다. 김태훈(78경제), 김학묵(78사회), 박혜정(83국문), 송종호(87서문), 이동수(83원예), 이진래(79제약), 황정하(80토목공학) 동문이다. 한편 관악캠퍼스 ‘민주화의 길’에 김태훈, 황정하, 이동수, 박혜정 열사의 추모비가 있다. 서울대는 2001년 박종철 열사를 시작으로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공헌을 기리며 총 58명의 졸업생에게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했다.

총장예비후보자 4명선정

서울대 총장추천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제28대 총장예비후보자로 남익현(59경영)·유홍림(61정치외교)·이철수(64법학)·차상균(64데이터사이언스) 교수를 선정했다. 이들 4인의 예비후보자는 지난 8월 23일 총장추천위원회에서 발표한 13명의 총장후보대상자 중 제5차 총추위 회의에서 발전계획서의 구체성 및 실효성 등을 심사해 선정된 인원이다. 예비후보자들은 19일 연건캠퍼스와 21일 관악캠퍼스에서 공개 소견발표회에서 학교 운영 방안과 비전, 공약 등을 발표한데 이어 오는 10월 6일 정책평가단 평가를 받는다. 총추위는 11일 정책평가단 평가 상위 득점자 3명을 서울대 이사회에 총장 후보자로 추천하고, 이사회는 평가점수에 상관없이 평가를 벌여 11~12월쯤 최종 후보 1명을 선정하고, 교육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신임 총장을 임명한다. 새 총장은 내년 1월 퇴임하는 오세정 총장 뒤를 이어 2023년 2월 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샤 정문광장 조성



서울대학교는 지난 8월 25일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정문 보수광장조성 공사를 완료했다. 정문 '샤' 조형물을 다시 칠하고 그 주변을 보행객들을 위한 광장으로 조성하는 작업이 전날 모두 마무리됐다. 서울대 정문은 그간 조형물 아래로 4차선 도로가 뚫려 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졸업식 등의 큰 행사 때는 보행로가 협소하고 머물 공간이 마땅치 않아 방문객이 차로로 내몰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안전사고 문제가 상존했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해 정문 환경개선 사업을 벌여 조형물 아래에 난 도로를 옆으로 우회하도록 하는 공사를 벌였다. 올해 5월부터는 조형물 아래 남아있던 아스팔트 바닥을 석재로 포장하고 나무와 학교 안내 벽, 의자, 조명 등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8월 29일 '제76회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리기 전 모든 공사가 끝나면서 정문 광장은 졸업생 및 방문객들의 새로운 '인증샷' 명소가 되었다.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발전공로상 시상



서울대는 제15회 발전공로상 시상식을 지난 9월 6일 서울대 호암교수회에서 열었다. 수상자는 강중현 (주)삼진글로벌넷 회장, 故 고윤석 서울대 명예교수, 박민식·박금옥 부부, 서정선 (주)마크로젠 회장 등이다. 한편 서울대는 품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서울대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공로를 표창하고자 2008년 발전공로상을 제정하여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생활관 무인택배시스템 개시



지난 7월 30일부터 서울대학교 관악학생생활관(이하 생활관)에서 택배보관소가 없어지고 무인 택배보관함이 문을 열었다. 이번 변화는 '학생들이 기존 택배함에 만족하지 못하며 무인택배함을 대체로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운영위원회와 생활관, 택배사, 택배보관소 관계자 등이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이루어졌다. 생활관은 택배기사들이 택배함을 이용하도록 안내 배너를 제작 및 설치하고 장기 방치된 택배들을 개인에게 문자로 안내하며, 또한 무인 택배함 운영사와 함께 택배함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운위도 SNS를 통해 주요 문의 사항에 답변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는 등 무인택배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생활관 관계자는 앞으로 약 두 달간 운영 상황을 살펴보면서 무료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등 건의사항을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생활관 입주생들은 무인 택배보관함이 생기고 삶의 질이 올랐다고 전하고 있다.

무인간편식 출출박스



지난 9월 20일 학생회관 지하에 '9번 출구' 식당을 대체하는 '무인 간편식 코너'가 문을 열었다. 단체 급식 형태의 식당을 대체할 시스템을 도입하고 구인난으로 인한 주말 식당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생활협동조합(생협)은 풀무원의 무인 구내식당 플랫폼 '출출박스'와 2년 계약을 체결했으며 즉석식품, 라면 등을 판매하는 자판기 세 대가 설치됐다. 현재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며 추후 주말 포함 24시간 운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생협은 이용률에 따라 상품 종류 및 자판기 대수, 캠퍼스 내 추가 배치 등을 유동적으로 조절할 계획이다.

아트스페이스 예술주간



서울대학교 예술주간, ArtSpace@SNU가 지난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한 주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렸다. 학생처와 각 단과대학이 연합하여 개최되는 아트스페이스는 서울대 구성원이 가진 풍부한 예술적 역량을 함께 즐기자는 취지로 처음 시작되어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다. 지난 19일 개막식에서는 뮤지컬 동아리 레티스타트의 문학·음악·미술이 조화된 뮤지컬 '아서 새빌 경의 범죄'가 막을 올렸다. 미술전시 외에도 21일 미술대학 여성동문회 한울회 초청 강연, '우연한 외로움의 축복' 시낭송 공연과 금관 및 바이올린 연주도 이어졌다. 공연영상과 온라인 행사 기록은 예술주간이 끝난 뒤에도 예술주간 유튜브(<https://youtu.be/unOg1voiRRQ>)와 인스타그램에서 만나볼 수 있다.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장학생 1300여 명에 32억원 지원

서울대총동창회(회장 김종섭)의 2022학년도 2학기 관악회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8월 24일 서울대 문화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코로나19로 약 3년 만에 열린 이날 수여식에서 김종섭 회장은 “평균 연령 80세가 넘는 기부자들께서 팬데믹이라 조심스러우실 텐데도 여러분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해 주셨다”며 특히 95세 나이로 수여식에 참석한 임광수(48기계공학/ 임광토건 명예회장) 본회 고문에 경의를 표했다. 이번 행사에서 관악회는 2학기 장학생 670여명에게 15억5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로써 관악회는 올해 모교 학부생과 대학원생 총 1300여명에게 등록금과 생활비 장학금 등 총 32억여원을 지원했다.

관악경제인회 창립총회

총동창회 산하 관악경제인회(회장 이부섭)가 지난 8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이부섭(56화학공학) 동진세미켄 회장이 회장에 취임했으며 서병륜(69농공) 로지스윌그룹 회장이 수석부회장에 추인됐다. 김광수(77경제) 은행연합회 회장·김해련(AMP79기) 태경그룹 회장·이상현(85전자공학) KCC정보통신 부회장·민관기(87사법) 코스모스악기 대표가 상임부회장을, 김종훈(69건축) 한미글로벌 회장과 안경태(71경영) 삼일회계법인 전 임회장이 감사를 맡았다. 이날 총회엔 총동창회 김종섭 회장과 이희범 명예회장 등 65명이 참석했으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 디지털 선도하는 대한민국 혁신’을 주제로 강연했다.

나눔골프대회 개최



총동창회 나눔골프대회가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용인 레이크사이드CC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에서 오세정 총장은 허준이(02물리) 동문의 필즈상 수상 소식과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처음으로 20위권에 진입한 소식을 전하는 한편, 수해 이웃을 돕겠다는 김종섭 총동창회장의 말을 받아 “서울대가 최근 폭우로 수해를 많이 입었다”며 재치있게 도움을 요청했다. 협찬금은 전액 기부금 처리됐으며, 행사 후 잔액 4078만원을 모교 수해 복구 지원금으로 전달했다.

온라인쇼핑몰 오픈기념이벤트

지난 8월 31일 오픈한 총동창회 온라인쇼핑몰 ‘Mall SNUA’가 다양한 오픈기념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멤버십 가입 없이 회원가입만 해도 상품이 주어지며, 올해 연말까지 쇼핑몰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멤버십 회원 대상 추첨에 자동 응모대상이 된다. 누적 구매 금액대에 따라 자동 응모 및 무작위 추첨되는 경품이벤트도 있다. Mall SNUA는 동문만을 위한 폐쇄형 쇼핑몰로 정가 대비 최대 80%까지 할인된 금액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상품 구입을 하려면 쇼핑몰 연회비 10만원을 납부하고 멤버십회원이 돼야 하는데, 일반회원이 가입 때 동문임이 확인되면 멤버십회원이 아니어도 판매물품을 살펴볼 수 있다.

홈커밍데이 10월개최



총동창회의 최대 축제인 홈커밍데이가 오는 10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내 버들골에서 열린다. 코로나19 이후 모교 캠퍼스에 동문들이 모이는 대면 홈커밍데이는 3년 만이다. 식전행사로 교내 시설을 방문하는 캠퍼스 투어가 오전 9시부터 진행되며, 11시부터 행운권 접수, 중식 배포, 어린이들을 위한 페이스페인팅 등 이벤트가 진행된다. 12시 30분부터는 축사, 동창회 경과보고, 행운권 추첨, 축하공연 등의 공식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9월 30일까지 이뤄졌다.

저소득층 학생 및 난치병 어린이 지원

총동창회 사회공헌위원회(공동위원장 변주선·류진)가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및 특수학교 지원과 난치병 어린이 치료를 지원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형편이 어려운 동문 지원, 어린이난치병 치료지원,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 지원, 문화예술인 지원, 사회공헌행사 지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엔 서울시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및 특수학교에 총 1500만원을 지원했다. 난치병 어린이 치료사업으로는 얼굴기형 어린이 치료에 쓰일 6000만원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동문모금과 관악회 사회공헌활동예산 지원을 통해 현재 4억여 원의 기금을 조성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등산대회

- 집합일시 : 10월 20일(목) 오전 8시
- 집합장소 : 2·9호선 종합운동장역 7번출구
- 산 행 지 : 주왕산 절골(경북 청송)
- 신청방법 :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후 참가비 입금
문자1877-2039(전화수신불가),팩스02-703-0755,이메일 member@snu.or.kr
- 참 가 비 : 5만원 (버스 대절비, 오찬, 기념품 제공)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887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입금 시 성함과 입학연도를 같이 표기

10월 수요특강

- 일 시 : 10월 26일(수) 오전 7시 30분
- 장 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공덕역 8번 출구)
- 강 연 자 :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주 제 : 격변하는 시대의 한반도와 대북정책
- 참 가 비 : 무료(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 신청기간 : 10월 1일 - 선착순 마감까지
- 신청방법 :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문자1877-2039(전화수신불가),팩스02-703-0755,이메일 member@snu.or.kr

11월 오찬포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되었음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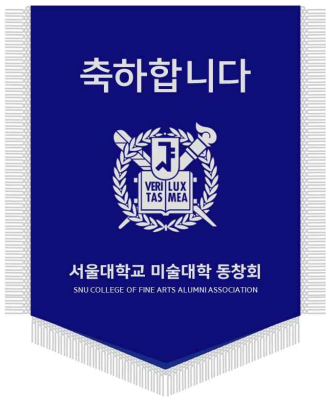
- 일 시 : 11월 4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 소 :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청앞)
- 강 연 자 :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 주 제 : 미정
- 참석인원 : 150명
- 참 가 비 : 5만원 (오찬 및 도서 제공)
- 신청방법 : [성함, 단과대학(과정명), 휴대전화번호 기재] 후 참가비 입금
문자1877-2039(전화수신불가),팩스02-703-0755,이메일 member@snu.or.kr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 입금 시 성함과 입학연도를 같이 표기

회비납부안내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9월중 회비납부내역은 10월분과 함께 다음호에 게재됩니다.

축하기·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
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
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
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
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보세요~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는 매월 말일 발행되며 동문 및 관련단체 등 3000
여명에게 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인스타그램·네이버밴드 등 SNS에도 게재하
므로 휴대폰으로도 편하게 보실수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전시 및 행사·인사·수상·개업·결혼·부고 등 동정을 메일
(snuarta@naver.com)이나 문자(010-5235-1946)로 보내주시면 소식지에 게재
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
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동문은 사
업체 소개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
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
지사항,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
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광고협찬안내

회지광고를 통해 기업 또는 단체, 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
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전면	50만원
1/2면	30만원
1/3면	20만원
1/5면	10만원

서울대미대동창회 E-NEWS 9

- 발행일: 2022년 9월 30일 ● 발행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
- 발행인: 권영걸 ● 편집주간: 이민주 ● 편집국장: 민수정
- 편집인: 신지영 장주연 이하늘 명소연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 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 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
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싱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
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
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이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
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하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BOX 가격표							
호	가로	세로					
		F(인물)	가격	P(풍경)	가격	M(해경)	가격
1	22.7	15.8	5,000	14.0	4,500	12.0	4,0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부직포주머니 가격표		
가로	세로(cm)	가격(원)
650	550	2500
850	700	3000
1000	850	3500
1100	900	4000
1250	1000	5000
1500	1200	7000
1700	1400	9000
1950	1500	10000

D-Pack에서 자체제작한 간편하고 튼튼한 부직포주머니는 별도로 구
매가 가능하다. (문의) 02-783-7080 (문자주문) 010-8474-7080

서울대정문 탄생기

강찬균(57응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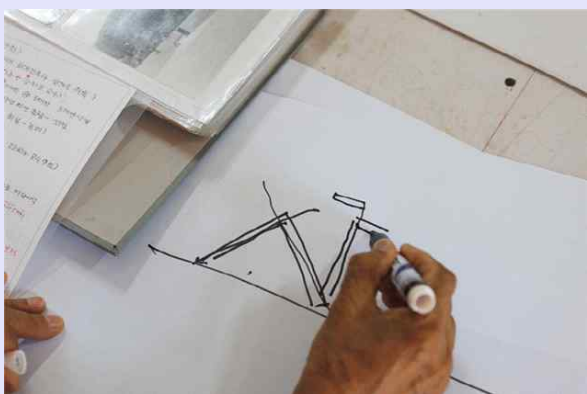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소식을 전하는 '스누새편지'에 서울대학교 상징물 '샤' 정문을 디자인한 강찬균 동문의 이야기가 실렸다. 서울대 정문광장 완공을 기념해 이번 62번째 스누새편지의 기사를 특집으로 전한다.



우리 학교의 대표 상징물인 '샤' 정문. '샤'의 아랫부분은 차량이 다니던 길이었는데요. 최근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정문 주변을 광장화했어요. 이제 정문 바로 옆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사진도 찍고, 정문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됐어요. 문득 스누새는 광장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샤 정문은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해졌어요. 제야의 종으로 유명한 보신각 종을 조각하신 미술대학 강찬

균 명예교수님(디자인학부 공예과 금속공예 전공)을 만나 정문 탄생기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어요.

"당시 미대 김세중 학장님은 정문 조성 의지가 강했어요. 1976년 겨울 조교수였던 저를 불러 정문 설계 시안을 준비해 보라고 하셨죠. 1977년 3월 개강하자마자 본부, 미대, 공대 3개의 후보 시안을 선정해 학장 회의를 개최했지만 결정이 어려워 미대, 공대, 환경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등 9명의 위원을 위촉하고 전문위원회를 꾸렸어요." 1975년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단과대학을 모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를 조성했지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문은 없었대요. 캠퍼스를 대표하는 정문의 필요성과 디자인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1976년 4천만 원의 국회예산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인 정문 조성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전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먼저 정문 건립에 대한 원칙을 세웠대요. 첫째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룰 것, 둘째 상징적일 것, 셋째 서울대인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 넷째 개방적이며 형태는 미달이식일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1차 회의 후 9명의 위원 중 제일 막내였던 저에게 추가 시안을 만들라고 했어요. 10일 뒤 개최된 2차 회의에 2개의 새로운 시안과 함께 펜으로 이런저런 안을 그렸던 스케치북을 들고 갔죠. 정식으로 제출한 2개의

시안에 대해서는 나머지 위원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그러다 스케치북에 그려 뒀던 '샤' 형태의 디자인을 발견한 위원들이 '어' 하더니 손가락으로 허공에 그려보더라고요. '이거라며' '샤'를 교문 형태로 구상해 보자고 결정하고 저에게 정식 도면을 요청했어요." 강 교수님은 보이스카우트에서 '스(시옷)'으로 엇갈리게 말뚝을 박아 천막치던 것에 착안해, 서울대 배지 안의 '샤'를 보고 스케치했었다고 그 당시를 떠올리셨어요.

그래픽 작가였던 강 교수님은 작도 렌더링 대신 직접 찍은 학교 입구 사진에 투시도를 그리고, 설계도 대신 1/20로 축소된 금속 모형을 제작했어요. 더 쉽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거죠. 3차 회의에서 이를 직접 본 위원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샤'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대요. "금속 모형을 제작해 간 덕분에 설계팀에서 렌더링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었죠. 하지만 바로 제작을 시작할 수 없었어요. 1977년 11월 완공이 목표였는데 46톤의 철근 재료값 밖에 안되는 공사 금액 때문에 2번

연속 유찰됐어요. 당시 시설국장의 결단으로 공과대학 공사 중인 건설 업체에 정문 제작을 발주했고 다음해인 1978년에 완공했어요."

완공된 후 새 정문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은 다양했대요. "사실 무슨 철골이냐며 짓다만 공장 같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죠. 지금은 파리의 대표 명물인 에펠탑도 처음에는 흉물스럽다고 했어요. 결국 정문 색상도 점잖은 브라운 계통의 세피아 색상으로 결정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인주와 비슷한 광명단(주홍색)으로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너무 튀기도 하고, 당시에는 정치적인 느낌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강 교수님은 정문 조성에 대한 결정



후, 사안들이 바로바로 결정되며 바쁘게 돌아갔기 때문에 여론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셨다고 해요. "저는 정문 완공 직후 바로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어요. 미대에 새로 개설되는 금속 공예 전공 때문이었

죠. 그래서 구성원의 반응도 잘 몰랐어요. 김세중 학장님은 부정적인 여론에서 저를 보호하려고 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전 다듬기만 했다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왼쪽) 출입구 사진에 그린 '샤', (오른쪽) 모형제작 당시 강교수 모습

젊은 창작자의 입장에서 당시 '정장(샤)'이 아닌 다른 창의적인 작품으로 정문을 디자인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으셨대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학교 구성원이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정문이라 만족스럽다고 하시네요. 오랜만에 학교에 들러 새 정문도 보시고, 광장 조성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도 전하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또한 정문을 제작한 작가로서의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정문을 광장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더 가까이서 즐길 수 있어서 좋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서울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정문을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40여년 전, 온전한 종합대학을 만들기 위한 바람을 담아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진 정문. 이제 더 열린 캠퍼스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광장이 됐어요. 사람들에게 가까워진 만큼,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서울대학교가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길 기대해 봅니다.



동문미술관 탐방

안상철미술관

김철호(63회화)



양주의 기산저수지 앞에 위치하고 있는 안상철미술관은 안상철(50회화) 동문과 나혜석 화백의 조카 나희균(50회화) 동문 부부의 예술세계를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설립되었다. 부부의 장녀 안재혜 관장과 더불어 공동관장을 맡고 있는 김철호(63회화) 동문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1. 미술관의 설립 배경은?

본 미술관은 2008년 연정 안상철 화백이 말년에 작업실로 사용하던 아뜰리에 근처에 세워졌다. 연정 안상철 화백은 경남 함안 출신으로서 평소 전원생활을 동경하여 정년퇴임 후 이곳에서 여생을 보낼 계획으로 1988년 약 20평의 작은 아뜰리에를 짓고 좋아하던 분재들과 나무를 가꾸고 작품활동을 하였다. 1993년 그의 갑작스레 별세한 후 유족들은 안상철 화백을 기리기 위하여 2006년 부지를 마련하고 장남인 안우성 건축가의 설계와 (주)코렘시스건설의 시공으로 2008년 8월 개관하였다.

2. 미술관의 운영목표는?

2013년에 본 미술관은 경기도 지역 사립미술관으로 등록한 후 안상철미술관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하였다. 안상철미술관은 첫째, 연정 안상철과 더불어 부인 나희균 화백의 예술세계를 널리 알리고 두 화백의 작품을 보존 관리하고 연구한다. 이는 한국 미술사에서 두 화백의 적절한 위상을 세우는 것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둘째, 양주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정착하여 작품활동을 하였던 두 화백 뜻을 존중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풍성하고 다양한 지역 문화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좋은 전시를 유치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기본 기능을 충실히 할 계획이다.

3. 미술관을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화 또는 전시가 있다면?



현재 열리고 있는 '사유하는 빛' 전시가 각별하다. 서양화 동양화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표현 양식이 무한히 다양해지고 확장되는 현대회화의 맥락 속에서 서양화의 오랜 소재이자 주제가 되어왔던 빛을 한국화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하는 발상에서 기획된 전시다. 빛이란 눈에 보이는 외광도 있지만, 이번 전시 참여 작가들은 마음 속의 빛을 찾아 표현하였다. 긍정의 힘, 희망, 깨달음, 적극적 표현 의지로 각각 해석되는 작가들의 예술혼을 모은 작품들이 지금 안상철 미술관에서 빛나고 있으며(10월 20일까지) 많이 방문해 주기 바란다. 현재 모교 학장인 김성희 교수를 비롯하여 이철주, 이길원, 조순호, 이종목, 서용, 이승철 동문들도 이번 전시에 참여하고 있다.

4.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은?

본 미술관의 강점은 교육적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상반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미술사 방법론' 수업을 12회 진행하여 호평을 받았다.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 수강생들이었지만 예술의전당 등 아카데미에서 미술사 공부를 여러 해 해온 내공 있는 분들이었고 에듀케이터 또한 대학원 강의까지 하고 계시는 분이라 미술 전공자 수준의 수업이 진행되었다고 자부한다. 코로나 시기가 거리가 멀거나 건강이 염려되는 수강자를 위한 줌수업도 진행하였다. 또한, 외부 강사를 영입하여 진행한 '영국미술관 해설' 강의 6회 역시 매회 40여 명이 수강하는 큰 호응을 받았다. 앞으로 한국 미술사와 현대 한국작가를 소개하는 수업도 곧 마련할 계획이다.

5. 급변하는 사회와 변천을 거듭하는 현대미술에 따른 새로운 프로젝트는?



우선 미술관의 기본 기능에 충실하여 좋은 전시를 기획하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젊은 날의 연정 안상철 화백과 같은 작가정신으로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하는 젊은 작가들을 찾아내어 급변하는 현대미술의 흐름을 읽어내는 전시를 하려고 한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관람자와 현대 한국화 작가를 잇는 적극적인 가교역할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아시다시피 미술관에서는 작품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중과 작가를 직접 연결하는 기능은 없다. 그러나 현대미술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고 관람자들이 작가를 이해하고 안목을 높여 미술 세계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수준 높은 대중 강의를 해왔고 앞으로도 좋은 수업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다. 현대 한국화 작가 소개를 중심으로 작가 탐구 강의도 계획하고 있다.

6. 사립미술관을 운영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당연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크다. 외부 지원만으로는 좋은 전시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스스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미술관은 올 여름 대대적으로 리뉴얼 공사를 마쳤다. 전시공간을 새로 정비하고 작은 카페공간을 다시 꾸몄다.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이 장소를 잘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해 보려 한다. 그리고 수준 높은 유료 미술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미술관 해설 6회 강의 후 수강자를 중심으로 실험적으로 아트투어 한팀을 구성하여 실제로 영국 여행을 다녀왔다. 유럽 미술관 여행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한 뒤 실제로 아트투어를 떠나는 계획도 생각해 보고 있으며 재미있고 다양한 수익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7. 타지역과의 교류전이나 국제전 등으로 전시영역을 확대할 계획은?

꿈이지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국내에서만 알기에는 너무 아깝고 큰 작가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기회를 만들어 우선 해외의 좋은 문화원 공간에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는 것이 작은 꿈이다. 해외에서 칭찬받고 돌아오면 우리 그림에 대한 평가가 국내에서도 더욱 높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작은 꿈이니 이루어지리라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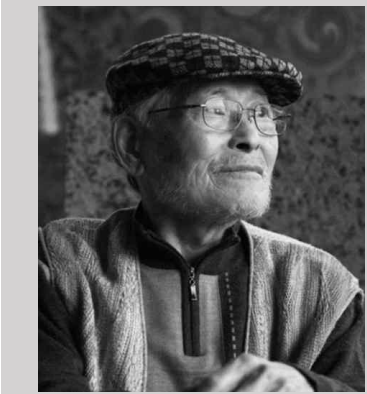
8. 미대 후배들에게 해 주고 싶은 얘기는?

예술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호흡하듯 걸음을 건듯이 꾸준하게 예술에 정진하기를 바란다. 미술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큰 시각으로 미술사를 살펴보면 진실한 예술 정신은 변치 않는다고 생각한다. 안상철미술관 설립자인 나희균 화백도 현재 91세 고령이시지만 날마다 숨 쉬듯이 작업을 하신다. 예술의 세계가 쉽지 않지만 그만큼 아름답고 심오하지 않은가? 예술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꾸준히 좋은 작품 하기를 바란다.

안상철미술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권율로 906 (T)031-874-0734, 031-871-6205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영화(49회화/1929-2022)



해정(海丁) 전영화(본회 고문) 동문이 지난 8월 17일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1929년 천안에서 태어나 모교 회화과를 졸업한 전동문은 최초로 대학미술교육을 받은 1세대 작가이다. 지역과 시대성을 바탕으로 한국 고유의 전통 오방색 등 전위적이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수묵추상이라는 독자적 작품세계를 구축했으며, 한국, 일본, 미국, 벨기에 등 국내외에서 300여회의 전시에 작품을 출품하였다. 아흔이 넘은 나이에 천안미술발전을 창작활동을 이어가던 전동문은 2021년 천안문화재단 천안시립미술관에서 ‘천안을, 보다-해정(海丁) 전영화’ 전시를 4월에 개최하였다. 한편 전동문은 한국미술협회의 부이사장(1991), 고문과 자문위원, 국민예술협회 회장(1995-1996)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전동문의 장례는 코로나19 시국을 고려하여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지면서 별세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방혜자(56회화/1937-2022)



세계적인 명성의 재불화가 방혜자 화백이 지난 9월 15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향년 85세로 별세했다. 방동문은 서울과 파리를 오가며 빛, 생명, 우주를 주제로 작품 활동을 펼쳐왔다. 방동문은 모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 국립고등미술학교에서 벽화 및 색유리학 등을 공부했고, 국내외에서 100여회가 넘는 전시회를 열었다. 우리 예술을 세계에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의 미술인상 해외작가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 한불문화상,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빛의 화가’로 유명한 방 화백은 프랑스 남부 아르데슈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인해 세상을 떠났다. 지난 17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고 방 화백의 유족에게 조전을 보내 애도의 뜻을 전하고 예술적 성취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주프랑스한국문화원에서는 재불 예술인들과 현지인들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문화원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회고 다큐멘터리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김창열(48회화)



‘물방울 작가’로 불리며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김창열 동문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가 28일 개봉을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28회 핫독스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월드 프리미어를 시작으로 제13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신진감독상, 제61회 크라쿠프영화제 실버혼상 등을 수상한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는 자신을 둘러싼 상처와 그리움을 예술로 승화시킨 ‘물방울 작가’ 김동문의 고독과 침묵 그리고 그의 작품에 핵심을 이루는 ‘물방울’의 의미에 다가가는 최초의 다큐멘터리이다. 영화는 화백의 삶과 예술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달마대사’와 ‘노자’ 등 동양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는 왜 김동문이 그토록 ‘물방울’에 오랜 시간 천착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며, 예술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씻어내고 ‘무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한 예술가의 삶을 간접적으로 전한다. 김동문의 진짜 생각과 아름다운 음악이 돋보이는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는 한 편의 시를 마주하는 듯한 사색과 감상을 마주하는 아트 무비로 다가갈 예정이다.

스위스 제네바 IAC 참여 이부연(71응미), 김유주(80응미)

이부연 동문과 김유주 동문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2022년 제 50회 IAC Congress에 참여했다. ‘Melting Pot’이라는 주제아래 9월 12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AC(International Academy of Ceramics)는 1952년 발족된 도자공예 전공자들의 모임 중 가장 권위있는 세계적인 협회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2년마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신입회원을 모집한다. 현재 77개국 10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개최된 국제행사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IAC



members best 2022 온라인 전시회에는 이동문과 김동문을 비롯하여 3명의 한국작가가 참여했다. 이동문은 8명의 Member lecturer선발에 선택되어 9월 12일 스위스시간 오후 3시 30분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Ceramic Art Activities for Social Development in the World’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김동문은 지난 9월 13일부터 내년 3월 18일까지 개최되는 아리아나박물관(Musee Ariana) 33명 초대전시회 ‘Imigration’ 전에 선발 초대되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임명 박은실(84산미)



박은실 동문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에 임명됐다. 임기는 2022년 9월 15일부터 2025년 9월 14일까지 3년이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모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문화복지 실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교육기관이다. 박동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제2차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에 기여하는 등 문화예술정책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왔다. 문체부는 “신임 원장은 30여 년 가까이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문화예술경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인물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의 공정한 접근 기회’를 보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는데 힘쓸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동문은 1988년 모교를 졸업한 뒤 1997년 시카고예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석사와 201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한민국 문화경영 대상 배기열(92동양)



배기열 동문이 원장으로 재직하는 한국융합기술진흥원이 지난 9월 5일 개최된 ‘2022년 대한민국문화경영대상’에서 ‘융합기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문화경영대상’은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파워코리아(발행인 백종원)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헤럴드가 각 분야에서 뛰어난 문화 경쟁력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인물·기업·기관·브랜드 등을 발굴하여 국내외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한국융합기술진흥원은 AIoT 본부를 구축하고 연구 개발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최초로 4차 산업혁명 선도 훈련 기관으로 선정되어 AIoT 아키텍처와 구현실습, AIoT 설계도 역량개발 등 최초의 AIoT 지식사, 아키텍트 전문가 양성과 함께 G밸리 일자리 플랫폼 ‘굿잡’을 운영하고 있다. 배동문은 “배기열융합예술원과 서울지아트갤러리를 통해 작가 발굴과 프로모션을 추진, 한국을 문화 선진국으로 끌어올리고 세계 미술의 중심지가 되도록 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울회 세미나개최



여성 동문작가들의 모임인 한울회 (회장 이부연/ 71응미)가 지난 9월 21일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개최해오던 야외스케치 대신 열린 이날 행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한울회 안수경(85공예) 홍보간사의 사회로, 이부연 회장의 인사말, 김성희 모교학장의 축사, 빛의 화가 김인중(59회화) 신부와 안데르센상 수상자 이수지(92서양) 작가의 강연, 장학금 전달 순으로 진행

됐다. '동경'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김동문은 세미나 관객과의 만남을 화두로 던지며 '배움에서야말로 만남은 중요하다.'며 귀스타브 모로 같은 스승을 만나 늦게 그림을 시작한 앙리 마티스 얘기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태도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이어 이동문은 '그림+책 작가 이수지입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가졌다. 이동문은 영국 유학시절 접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전시와 자신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통해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세미나를 시작하였다. 이동문의 그림책 작가로서 '책'이라는 물리적인 매체를 이용하는 연구를 이동문의 작업물을 함께 보며 관객들에게 설명하였다. 한편 한울회는 이부연 동문이 회장에 취임한 이후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고, 매년 학부 및 대학원생 1인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를 신설했으며, 젊은회원들을 적극 영입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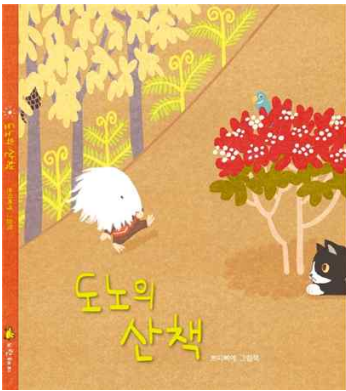
인촌상 수상 이수지(92서양)



이수지 동문이 지난 9월 6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가 발표하는 인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올해로 36회를 맞은 인촌상은 교육, 언론문화, 인문사회, 과학기술 등 4개 부문과 특별 부문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기관 및 인물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동문은 1996년 서울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뒤 2001년 영국 캔버웰예술대에서 북아트 석사 과정을 밟고 본격적으로 그림책 작가의 길을 걸으며

국제무대에서 주목받았다. 직접 쓰고 그린 책으로는 '그들을 산 총각', '강아', '산', '거울속으로', '파도야 놀자', '그림자놀이', '동물원' 등이 있으며 그린 책은 '물이 되는 꿈', '우로마', '이렇게 멋진 날' 등이 있다. 이동문은 올해 3월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한국 작가 최초이자 38년만의 아시아 작가로서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는 일제강점기 암울한 시대에 동아일보와 경성방직을 설립하고 중앙학교와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를 통해 인재를 양성한 인촌 김성수 선생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1987년부터 인촌상을 제정해 시상하고 있다. 시상식은 10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치러질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상금 1억 원과 메달을 각각 수여한다.

그림책 '도노의 산책' 출간 유혜민(07서양)



유혜민 동문의 네 번째 그림책 '도노의 산책'이 지난 9월 9일 출간됐다. 이번에 새롭게 출간된 책 '도노의 산책'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간과할 수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친구 사이의 따뜻한 우정에 관해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현재 학교에서 어린이 인성교육을 위한 독서토론 책으로 인기가 높은 '꿀오소리 이야기',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의식을 다룬 '내 이름은 푸른 점', 개성과 다양성 존중을 다룬 '걸어 다니는 새'에 이은 유동문의 네 번째 작품이다. 유동문은 이

번 책에서 주인공 도노가 메마르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무례함을 침묵으로 참아내는 모습을 통해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무시당하고 가식적인 사람으로 오해받는 세상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약자에게 화풀이하지 않는 온화한 그림책 속의 친근하고 귀여운 동물 캐릭터들은 독자인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잔잔한 감동과 위로를 전해준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볼 수 있게 해주고 어른들에게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의 소중함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잔잔한 감동이 스며들게 되는 책이다. 한편 유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판화, 런던 UAL 캔버웰 칼리지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했다. 현재 이웃과 음식에 관심을 갖고 뿌띠삐에(Petits Pieds) 캐릭터들을 통해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들을 조명하는 창작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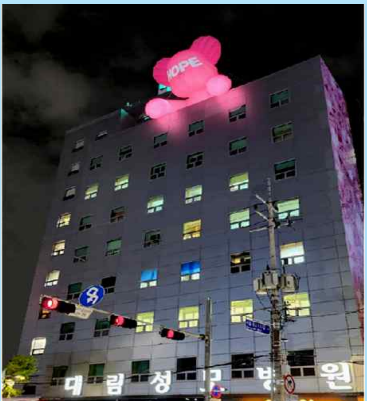


대림성모병원, 핑크베어가 돌아왔다!

유방암 인식 개선을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

대림성모병원이 팝아티스트 임지빈 작가와 함께 유방암 인식 고취와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병원에 대형 베어브릭 아트별론을 설치했다. 핑크베어 프로젝트는 2016년 핑크리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림성모병원 옥상에 처음 선보였으며 스포츠뉴스 등의 언론 및 SNS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이번 핑크베어 프로젝트는 조기검진을 통해 유방 건강을 바라고 유방암 환우분들의 쾌유를 희망한다는 의미의 HOPE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대림성모병원 서울시 영등포구 시흥대로 657 대표전화: 02-829-9000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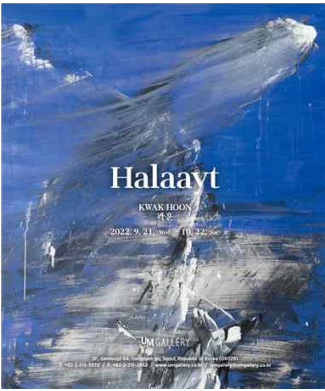
대한민국예술원(회장 유희영/ 58회화)이 제 43회 대한민국예술원 미술전을 9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예술원 1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올해 미술 전에서는 15인의 현 회원(이종상, 오승우, 윤명로, 유희영, 박광진, 김숙진, 정상화, 전뢰진, 최종태, 엄태정, 최의순, 이신자, 강찬균, 권창륜, 윤승중)의 작품 26점을 전시한다. 최근 2년 사이에 제작된 신작을 비롯해 구작(舊作) 가운데 미술전에 처음 선보이는 작품 등 세월을 잊은 원로 미술가들의 씬



없는 예술 열정이 담긴 결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올해와 작년에 유명을 달리한 고(故) 김병기 회원의 '다섯 개의 감의 공간'(2018년)과 고(故) 송영방 회원의 '을미길상도(乙未吉祥圖)'(2015년)도 선보인다. 예술원은 1954년 개원 이래 지난 1979년 '제1회 예술원 미술 분과 회원 작품전'을 시작으로 우리 미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매년 미술전을 개최해왔다.

Halaayt 곽훈(59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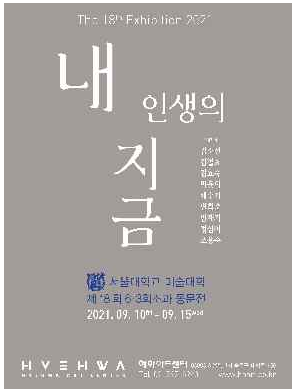
곽훈 동문의 개인전 '할라이트 Halaayt'가 서울 강남구 UM GALLERY에서 지난 9월 21일부터 오는 10월 22일까지 열린다. '할라이트'는 에스키모인들이 고래사냥시 안전과 수확의 기원이 담긴 거대한 영적인 힘을 의미하는 단어이자 곽동문의 고래연작의 제목이다. 30여년전 알래스카 여행에서 고래뼈를 본 곽동문은 과거 이누이트인들이 고래뼈로 만든 카누를 타고 고래잡는 행위를 연상하며 강력한 에너지와 주술적 힘을 작품으로 표현하려는 욕구를 느꼈다. 이후 울산 반구대 고래 암각화를 통해 에스키모인의 문화와 정서가 한국인과



유사한 점, 고래잡는 행위가 조상신과 연결되려는 애니미즘이라는 데에 착안해 '할라이트' 연작 작업에 들어갔다. 곽동문의 이번 작품은 원시 이누이트인들이 얼음 바다 속에서 고래를 마주한 광경을 화면에 담은 것으로, 거친 생명력과 압도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거대하고 위협적인 고래와, 사투를 벌이는 역동적인 작은 크기의 사냥꾼이 반추상적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곽동문은 모교 졸업후 아방가르드협회를 만들어 활동했으며, 1975년 미국 이민 이후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내 인생의 지금 63회조과 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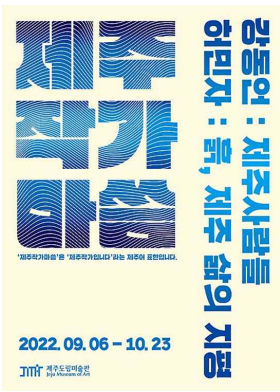
63학번 회화조소과 동문들의 단체전 '내 인생의 지금'이 서울 혜화아트센터에서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열렸다. 김소선·김철효·김효숙·박윤희·배수자·변희준·안재기·정심미·조용숙 총 9인의 동문이 참여했다. 이번 전시에는 김소선동문의 벌레 먹어 해진 나뭇잎 구멍 사이로 보이는 푸르른 하늘을 표현한 작품, 김철효동문의 기억의 저편에 흩어진 사진들을 끌라쥬한 작품, 김효숙동문의 기독교 신앙의 사랑과 십자가 연작을 테라코타 부조로 나타낸 작품, 박윤희동문과 배수자동문의 자연을 서정적으로 표현한 작품, 조용숙동문의 순수한 자연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인물들을 표현한 작품, 변희준동문의 알루미늄



판재로 성경의 인물을 구현한 작품, 안재기동문의 성경에서의 승리의 기쁨을 노래한 목조작품, 정심미동문의 강렬한 쪽빛 유리 오브제 작품 등 다양한 작품들이 어우러졌다. 전시에 참여한 동문들은 "젊을 때 늘 부족했던 시간이 갑자기 많아져 시간 부자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시간을 나눠 쓰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아무에게나 나눠 줄 수도 쉽게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시간을 나눈다는 것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고 나눠 주기도 나눠 받기도 하며 사랑하고 행복해하는 동행들이 있습니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흙, 제주 삶의 지평 허민자(63응미)

허민자 동문의 2인전 '제주작가마춤'이 9월 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제주도립미술관에서 열린다. '제주작가마춤'은 '제주작가입니다'라는 제주어로, 제주화단에서 중추적이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작가들의 작품세계를 개괄하고 제주미술의 역사와 발전 방향을 조망하는 전시이다. 허동문은 제주의 자연, 향토문화, 신앙세계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4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첫 번째 공간은 물레작업과 장작소성 방식으로 전통을 계승한 도자기로 구성했다. 두 번째 공간은 1983년도 일본교토시립대학에서 작업한 제주의



바다와 팽나무를 주제로 한 도등시리즈와 귀국 후 제주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들, 세 번째 공간은 제주 자연과 지질을 상징화한 작품들, 네 번째 공간은 제주 현무암 질감과 형상을 담아 인체와 접목한 작품들로 구성했다. 한편 서울에서 태어난 허동문은 모교 응용미술과와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졸업 후 1978년부터 31년간 제주대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과와 문화조형디자인전공 교수로 재직했다. 2006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제주 심헌갤러리 관장이기도 하다.

Standing in the Now 차명희(64회화)



차명희 동문의 개인전이 9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서울 압구정로 JANET OH GALLERY에서 열린다. 내면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담아내는 차동문은 이번 전시에서는 목탄 대신 아크릴물감과 기타 재료를 사용해 색을 적극적으로 쓰는 역동적

이고 새로운 표현방식을 보여준다. 차동문은 동양적 경험에 뿌리를 둔 내면의 자연과 영원, 성찰을 표현하는 한국 현대미술의 중요한 중견 여성작가 중 한 명이며, 서양화의 측면과 동양화의 특성을 각각의 상대적인 내용을 혼합한 자신만의 기법을 통해 내면의 영혼에서 파생된 동양적 미감을 제시함과 동시에 서양 재료와 표현 기법을 이용하여 작업해오고 있다. 이번 'Standing in the Now'전시는 음악가가 즉흥적인 연주를 하는 것처럼 캔버스에 색과 획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치 한편의 시와 음악, 자연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순간에 관람자를 초대한다. 한편 차동문은 모교와 동대학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고 British Museum,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 중이다.

게으른 구름 김순기(65회화)



김순기 동문의 개인전이 세계 최고의 미디어아트센터로 불리는 독일 칼스루헤 ZKM미디어아트센터에서 지난 9월 10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김동문의 70년대 초기부터 최근까지

의 작업을 보여주는 자리이자 ZKM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첫 한국작가 개인전이다. 김동문은 다양하고 실험적인 매체 연구에 기반하거나, 관람객의 적극적 참여와 개입을 요구하는 대규모 퍼포먼스 작업을 통해 동서양 문화와 철학의 비교 연구,기호와 언어 놀이, 그리고 무엇보다 예술과 기술의 자유로운 융합과 공존에 대한 고민이 담긴 작업들을 발표해왔다. '게으른 구름'은 작가가 쓴 시의 제목이자, 프랑스에서 출간한 시집의 제목이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1971년 니스 국제예술교류센터의 초청작가로 선발되어 프랑스로 건너가 작품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KIAF ART SEOUL 2022

지난 9월 3일부터 6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관에서 열린 '키아프 아트 서울'에 권용래(82서양)·김병중(74회화)·김준옥(64회화)·박민희(85동양)·손문자(62응미)·손희옥(68회화)·신수진(91서양)·오용길(65회화)·이혜민(74응미)·정상근(83서양)·차명희(64회화)·최진희(83회화) 등 동문이 참여했다. 키아프는 한국화랑협회에서 2002년 개막하여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아트페어다. 세계적 아트페어 '프리즈 서울'과 공동 개최된 이번 키아프는 동시대 예술계의 중심으로 떠올라 전시기간을 전후해 영



국 테이트미술관, 미국 구겐하임미술관, 로스 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 등의 미술관장을 비롯해 국제적인 문화예술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일정을 쪼개 한국의 중견 작가들을 직접 만나거나 작가의 스튜디오, 국립현대미술관과 리움미술관, 서울 삼성동 일대 갤러리를 찾기도 했다. 키아프는 이제 프리즈와의 협업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최고의 아트페어로 도약할 준비에 착수한다.

소정 황창배(1947-2001), 접변 황창배(66회화, 1947-2001)

황창배 동문의 초대전 '소정 황창배(1947-2001), 접변'이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25일까지 서울 평창동 김종영미술관에서 열렸다. 1978년 국전에서 한국화 최초로 대통령상을 받으며 주목을 받은 황동문은 '한국화의 이단아'라는 이름처럼 밑그림을 생략한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서양화 재료를 도입하는 등 과감하고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실험을 이어갔다. 비록 병마로 인해 멈추었지만 1960년대 당시 '조국 근대화'라는 기치와 서구화에 매진하던 시대의 분위



기에 따르지 않고 서예와 전각, 한학과 미술사, 초상화를 배우는 등 한국화에서 현대화를 모색한 그의 노력은 한국 미술계에 큰 가치를 지닌다. 이번 유작전 제목 '접변'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다름을 인식하며 그를 토대로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로 황동문의 그림 여정과 당시의 시대를 응축한다. 그의 그림 여정은 한국미술의 근본을 찾고 뿌리를 갖고자 하는 작가와 후배들에게 여전히 좋은 본보기이다.

첫눈에 강요배(72회화)

강요배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학고재갤러리에서 열렸다. 강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그린 회화 18점을 선보였다. 제주에 거주하는 강동문은 제주의 구름, 안개와 바람, 눈을 전시장으로 옮겨왔다. 지난해 대구미술관에서 먼저 선보인 "바비가 온 정원"(2021)은 2020년 10월 태풍 바비가 왔을 때 정원의 풍경을 담았다. 제목을 모른 채 마주하면 가로 520cm, 세로 194cm의 대형 화폭은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이 초록 파도가 휘몰아치는 바다로 보인다. 수풀을 격렬하게 후려치는 바람을 표현하기 위해 강동문은 "붓 대신에 구긴 종



이와 말린 칩뿌리, 빗자루의 솔기 등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강동문의 회화는 자신의 삶과 생각, 감정을 자연에 투영한 의경(意境)의 세계다. '핵심만을 드러내는 추상에 닿는 것'이 그의 작업 목표다. 한편 강동문은 제주에서 태어나 모교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1981년 민중미술 동인 '현실과 발언'에 합류해 시대 현실을 드러내는 풍경을 그려왔다. 강동문은 1992년 '제주민중항쟁사' 연작을 모아 전시를 연 뒤 고향인 제주로 돌아와 제주의 자연을 주제로 한 작업을 해오고 있다.

심현희 개인전 심현희(76회화)

심현희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8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대학교 호암교 수회관에서 열린다. 심동문은 동양화를 전공하며 수묵화와 채색화에서 습득한 대담한 붓놀림을 자기만의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면서 자유분방하게 펼쳐오고 있다. 동서양의 다양한 붓은 물론 나이프까지 사용한 심동문의 화면은 시원하면서도 순수한 면을 가지고 있다. 심동문은 40여 년간 꽃과 인물에 매진해오면서 그 두 소재를 통해 명료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심동문에게 꽃



은 인간이고, 인간은 꽃이다. 심동문의 꽃은 대체로 일반 꽃 정물화와는 달리 큰 화폭에 한 두 송이가 거침없는 붓질과 나이프로 그려져 크고 화려하며 강렬하다. 이번 전시작들에서는 심동문이 포착한 찰나의 시간과 꾸미지 않고 본성을 그대로 담아내고자 하는 태도를 느낄 수 있다. 한편 심동문은 모교대학원 졸업 후 예원학교와 모교 강사로 재직하였다.

빛: 환영의 공간 권용래(82회화)

권용래 동문의 개인전 '빛: 환영의 공간 Light: Illusion Space'가 지난 7월 12일 시작하여 오는 10월 18일까지 서울시 은평구 삼각산금안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조명을 이용해 빛의 신비감을 보여주는 권동문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1부, '빛의 향연'과 2부, '빛의 환영'으로 나뉜다. 1부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과 조명을 이용해 빛의 신비감을 보여주는 권동문의 작품들을 소개한다. 인공조명과 한옥으로 들어오는 자연광이 하나되



어 다각도의 황홀한 빛을 보여주며, 빛의 존재를 인식하며 빛으로 그린 회화를 볼 수 있다. 2부에서는 일상의 사물과 빛이 만나 미적 쾌감을 자극하는 독특한 환영의 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출하였다. 한편 권동문은 모교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동아미술제 동아미술상, 중앙미술대전 장려상 등을 수상하였다. 현재까지 개인전 및 140회를 넘는 단체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늘 본 것 정서영(83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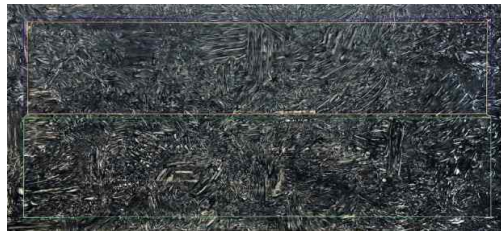
정서영 동문의 개인전 '오늘 본 것'이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11월 13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조각에 대한 정동문의 담론을 보여주는 1993년부터 제작, 발표한 주요 작품들과 신작 9점을 포함한 총 33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정동문은 일상의 그대로의 모습인 '리얼리티'를 드러내고자 화려한 치장을 거부한다. 그에게는 장판, 형겅, 스펀지, 카펫, 철사, 책상, 목재, 시멘트 덩어리, 플라스틱, 고무 등이 그 자체로 모두 조형의 재료가 된다. 정동문에게 조각은 고정된 물체 너머의 유동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일종의 관계적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 각각의 사물은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사물과 소통하며 같은 시공간을 공유하고 관계를 맺어 이야기거리와 의미를 생성한다. 이 같은 '나-사물-세계'는 정동문의 전작을 아우르는 핵심 개념이다. 1990년대에 현대 조각의 동시대성을 견인한 작가로 평가되는 정동문은 현재까지 조각을 포함한 드로잉, 사운드, 영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와 영역에서 유연하게 조각의 문제를 다루는 예술적 실험을 지속해 오고 있다.

지우고 채우고, 파내어 설치한 닷 이기영(84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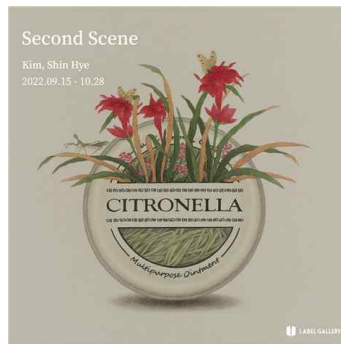
이기영 동문의 전시 '지우고 채우고, 파내어 설치한 닷'이 지난 8월 31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밈에서 열린다. 이동문은 소석회를 바른 장지 위를 누군가의 이름이나 문장, 낱자 등으로 채워 넣고 또 이를 손이나 대나무 붓, 사포로 문질러 지워내었다. 보이지 않게 될 것을 알기에 자유롭게 칠할 수 있고, 지우고 채우는 반복을 통해 우발적으로 생겨난



시각적 혼란을 직관적이고 능동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검은 그림 속 날카롭고 가느다란 선들이 '지우고 채우고 파내어 설치한 닷'이 된다. 한편 이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 대학원 졸업 후 2000년 국립현대미술관 젊은모색전을 시작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며, 현재 이화여대 동양화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두 번째 장면 김신혜(97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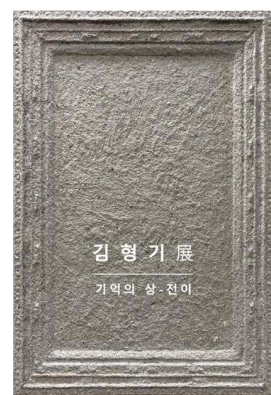
김신혜 동문의 개인전 '두 번째 장면 Second Scene'이 9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서울 성수동 레이블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레이블갤러리에서 수집해온 2000여개의 샘플 라벨 중 자연이 담긴 디자인을 선별한 신작전이다. 오랜 시간 다양한 국가에서 수집한 샘플들도 포함돼 있어 그간 보여준 일상적인 샘플들과는 다른 낯섦을 선사한다. 김동문의 작업은 전통산수화가 아닌 현대회화 안의 새로운 움직임의 보여준다. 그의 작업은 자연 이미지의 라벨이



붙어 있는 용기를 수집해 그 속에 있는 이상적 이미지를 확장해 그리는 작업이다. 그림을 보는 이들은 처음 작품을 마주하였을 때 제품에 부착된 라벨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다 문득 이를 망각하고 자연스레 이어지는 세계 '두 번째 장면'으로 시선이 옮겨지면서 새롭고 낯선 장면과 공간을 체험하게 된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동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뒤 영은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서 작업하기도 하였다.

기억의 상-전이 김형기(00조소)

김형기 동문의 개인전 '기억의 상-전이'가 지난 8월 2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금보성아트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작가의 기억에서 시작해 최소한의 의도만을 남긴 형상들이 전시된다. 전시되는 형상들의 여백은 관람객들의 기억과 추억을 떠올리거나, 새로운 경험을 상상하는 매개물로 남는다. 김동문은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기억과 감정이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되었던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을 것"이라며 "전시를 관람



한 관객들도 각기 다른 경험을 하지만 그 관객들 사이의 공유 및 공감할 수 있는 기억으로 새로운 경로가 만들어져 서로의 연결을 강화하고 지속시키는 매개체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조소과를 졸업한 후 현재 서울예술고등학교 강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7년 첫 단체전을 시작으로 2021년 '낙우 조각회 신입회원 특별전'에 이어 올해 첫 개인전을 개최하면서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PLAY- Fight or Flight 이은경(02서양)

이은경 동문의 개인전 'PLAY- Fight or Flight'가 지난 9월 1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갤러리 플레이스막에서 열렸다. 자화상 연작으로 알려진 이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기존 작업과는 달리 2019년부터 집중해온 'Carnavalesque', '마당놀이 fight or flight'와 같은 대형작품과 자화상작업 등 27점을 선보였다. 이동문은 거대한 그림 속 주인공들의 격양된 표정에 대해, 극단적 긴장 상태를 투쟁과 도피반응에 비교하며 의도치 않게 행해지는 실수



와 그 실수를 만회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담아내는 작업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업에서 이동문은 스스로 타자와의 대화 속에 야기되는 오해들 그리고 그것들이 설명되지 않을 때의 당혹감과 미묘한 소통불능의 상태를 반복 경험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전달하지 못했던 말과 감정들을 그림을 통해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INSPIRATION 정해윤(04동양)

정해윤 동문의 개인전 'INSPIRATION'이 지난 9월 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플래티넘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정동문은 이번 전시에 대해 '거대한 벽에서 튀어나온 서랍을 보면 빈공간으로 느껴질까 채워야하는 부담감으로 느껴질까?'라는 화두를 던진다. 누군가는 비우고 싶을테고 누군가는 무거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며 무거운 책임감이 떠



올라 저걸 어떻게 채우지 하는 강박도 있을 수 있기에, 정동문은 이 거대한 서랍을 통해 채워져 있다면 내려놓는 감상을, 비워져 결핍이 많다면 채우는 상상을 하며 마음을 위로하는 작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한 뒤 2006년과 2007년에 단원미술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슈퍼올드쇼 이인승(12동양), 안서진(석20동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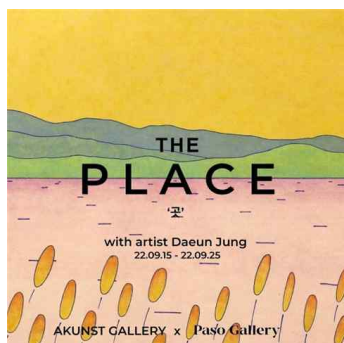
이안아트랩(LeeAhn Artlab)이라는 팀명으로 활동하는 이인승, 안서진 동문이 9월 2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 성수동 대림창고갤러리에서 '슈퍼올드쇼'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통 초상화기법으로 그린 K팝 아이돌스타 대형 초상화 7점을 비롯한 신작 28점을 선보인다. 영국 '가디언' 문화저널리스트 케이티 호손은 전시 서문에서 "시간성, 세계성, 개인과 국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혼합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이 순간의 격동적인 현실을 포착했다"며 "서방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문화 영향력 보다 한국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슈퍼올드쇼에서 맥락화하고자 한다"고 썼다. 한편 모교 대학원 동문으로 2020년 팀 활동을 시작한 두 동문은 동양화를 활용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안동문은 지난해 한국 역대 대통령을 어진제작기법으로 제작, 전시해 눈길을 끌어 청남대에서 초대전을 열기도 했다. 기획자도 겸하는 이동문은 지난 6월 김포 보름산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곳 정다은(14동양)

정다은 동문의 개인전이 지난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종로구 푸에스토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정동문이 떠났던 여행에서 선별한 풍경을 단순한 곡선과 직선의 형태로 재구성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정동문의 풍경은 실제 그대로가 아닌 감각으로 재구성한 풍경이다. 정동문은 특히 자연의 바람에 주목해 바람이 만든 리듬과 질서를 단순한 직선과 평면으로



구성한 정동문만의 자연을 새로 만들어낸다. 한편 정동문은 모교 졸업후 동양화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일러스트작가로 활동 중이다. '지구를 위한 변론' 등 책 표지 작업과 유평판의 EP앨범 '마음을 오르는 기록' 커버작업 등을 맡아온 정동문은 올해 화제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엔딩 일러스트 작업을 맡아 큰 사랑을 받았다.